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소비자 심리지수, 3년 넘게 최저치로 하락
- Bloomberg: 셋다운 곧 끝나도 12월 연준 금리 결정 쉽지 않다
- WSJ: 뉴욕 연준 총재, 대차대조표 확대 시사
- YahooFinance: 연준 부의장, 추가 금리 인하 신중

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증시, 핵심적인 전환점 맞이해
- WSJ: 비트코인 10만불 아래로 일시 하락

### [트럼프 행정부]

- Reuters: 백악관 고위 관리 "정부 셋다운 예상보다 심각"

### [무역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, 항만 크레인 관세와 중국 선박 입항료 1년 유예 계획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미 항공기 취소 계획으로 여행 산업 "흔란"
- CNBC: 소매업체 홀리데이 시즌 채용 최저치

### [미국 경제]

#### 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Declines to a More Than Three-Year Lo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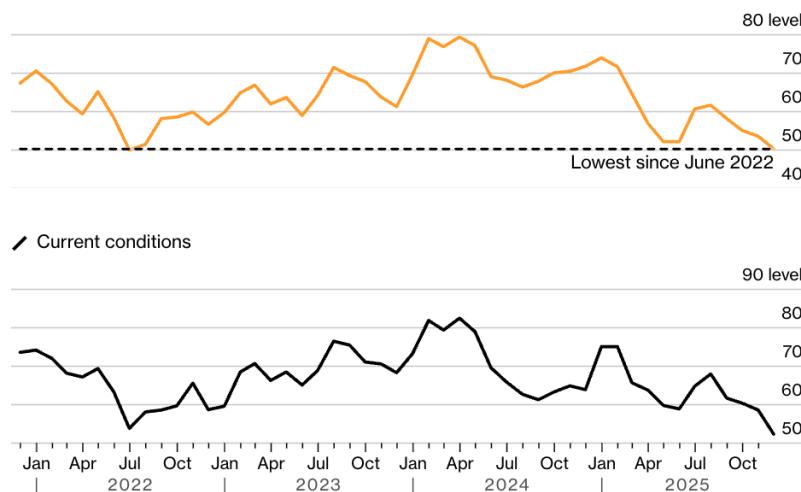
#### 미 소비자 심리지수,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

- 미 11월 소비자 심리가 3여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연방 정부 셋다운으로 경제 상황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물가 미국이 재정상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.
- 미시간대학이 오늘 금요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임시치는 50.3으로 지난 2022년 7월 일해 최저치를 기록했다.
- 정부의 셋다운에 대한 부담 심리로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6.3 포인트 하락한 52.3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.
- 심리지수는 연령, 소득 수준,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락했다. 민주당과 정치 중립 미국인들의 심리지수는 1984년 이래 관련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.

## US Consumer Sentiment Drops to Lowest Since June 2022

The current conditions index sinks to record low

Consumer sentiment



Source: University of Michigan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Fed's December Rate Decision Won't Come Easy, Even if Shutdown Ends Soon

셧다운 끝나도 12월 연준 금리 결정 쉽지 않다

- 연준은 바로 전 정례회의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핵심 경제 지표없이 금리 인하를 결정 했다.
- 그런데 연준 관리들이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되면서 받게 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별 쓸모가 없게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이들 데이터는 과거에 수행한 수치들에 바탕을 둔 조사이기 때문이다.
- 연준 관리들은 노동시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충분히 약화되었는지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월 일자리와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## WSJ: Fed's Williams Hints at Resuming Growth in Balance Sheet

뉴욕 연준 총재, 대차대조표 확대 시사

- 연준이 연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. 연준 총재 John Williams는 최근 이를 시사했다. 이에 따라 은행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돈이 축소되지 않게 된다.
- 지난주 연준 관리들은 오는 12월부터 6조 6천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축소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. 이는 이른바 은행 준비금이라고 불리는 '전자 현금'이 금융시스템에서 고갈되는 것을 빨리 막는 것을 의미한다.
- 연준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면 연준의 현재 돌고 있는 통화와 같은 연준 부채의 증가를 상쇄하게 된다. 이 같은 조치는 금리 정책과 상관없이 단지 연준의 정책 결정이 금

융시장에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
WSJ 기사

### **YahooFinance: Fed's Jefferson supported last week's rate cut, but wants to move slowly on further cuts**

연준 부의장, 추가 금리 인하 신중

-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는 오늘 금요일 “일자리 우려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해나가는 입장을 지지한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현재의 정책 입장은 여전히 다소 제약적인데, 그러나 연준은 중립적인 수준(경제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수준)으로 왔다고 덧붙였다.
- 그는 결론적으로 “우리가 중립적인 금리 수준으로 나가는 가운데 인하 조치를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”고 말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### **[미국 금융]**

### **Bloomberg: Stocks Face 'Critical Tipping Point' as Key Thresholds Tested**

증시, 핵심적인 전환점 맞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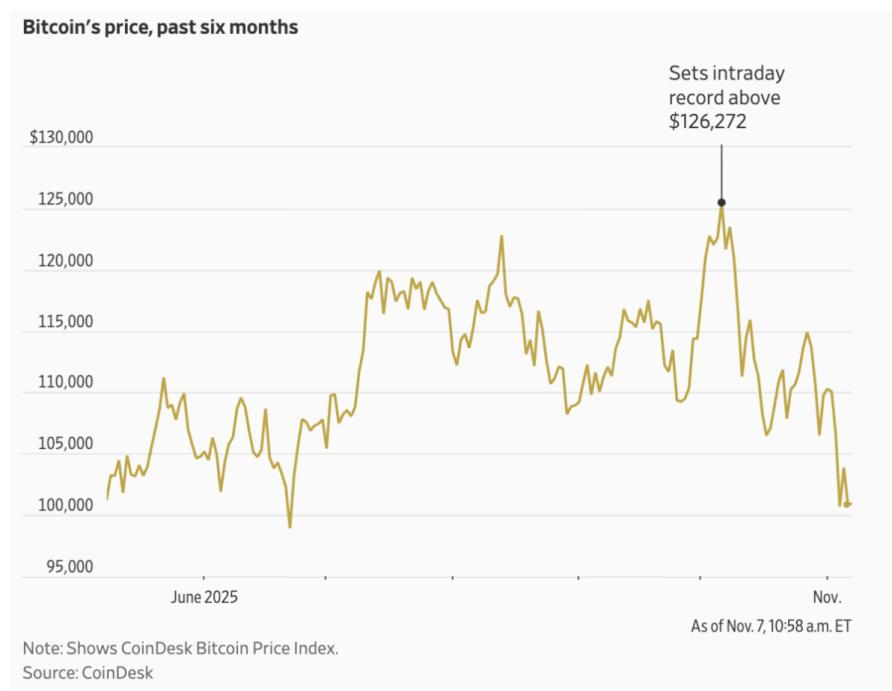
- 최근 변동성이 심한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주요한 지지선(방어선) 역할을 하는 S&P 500 지수가 6,665(50일 이동 평균선)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서를 찾고 있다.
- 만약 이 지수가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기술적인 위축이 보이게 되며 반대로 6,748.10을 회복할 경우 위험 자산 선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.
- S&P 500지수는 2.5% 떨어진 상태인데 20년만에 처음으로 10월에 기업들이 가장 큰 일자리 축소를 발표한 직후 투자자들은 빠져나갔다. AI로 인한 인력 축소로 이뤄졌기 때문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WSJ: Bitcoin Price Sinks Below \$100,000**

비트코인 10만불 아래로 일시 하락

-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일시 하락했다. 오늘 금요일 들어서는 10만을 약간 상회하는 가운데 주춤거리고 있다.
- 이 같은 약세 신호로 투자자가들은 신중한 모드에 있는 상황이다.
- 비트코인은 어제 목요일 잠깐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어제 오후 4시 거래 종료 시점에서 10만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.
-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 전만해서 \$126,27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빠르게 떨어진 위험 자산이다.



WSJ 기사

### [트럼프 행정부]

#### **Reuters: Impact of US government shutdown far worse than expected, White House adviser says** 백악관 고위 관리 “정부 셧다운 예상보다 심각”

-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Kevin Hassett는 오늘 금요일 “미 정부 셧다운이 경제에 예상외로 큰 여파를 주었으나 셧다운이 끝나자 마자 미 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Fox Busines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건축 분야가 둔화 상태로 접어들었고, 여행 산업이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.
- 그는 여행과 레저 산업이 현재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한두 주간 계속될 경우 적어도 ‘단기적인 경기 침체’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부분적으로 38일간 지속되고 있는 셧다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.

Reuters 기사

### [무역전쟁]

#### **Bloomberg: Trump Plans One-Year Pause on Port Crane Duties, China Ship Fees** 트럼프, 항만 크레인 관세와 중국 선박 입항료 1년 유예 추진

- 미국은 트럼프의 약속대로 중국과의 중간 합의로 이뤄진 중국 조선업에 대한 처벌 조치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.
- USTR은 항만용 크레인과 컨테이너 샤시(선박용 하부 프레임)에 대한 관세와 중국 건조/운항중이 배의 미국 입항료를 1년간 유예키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- 중국도 지난주 양국 정상의 회담에서 미국에 시행한 보복 관세 조치들을 중단키로 합의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**WSJ: Flight-Cancellation Plans Prompt Scramble Across Travel Industry 미 항공기 취소 계획으로 여행 산업 "혼란"**

-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교통 당국이 금요일부터 상업용 항공 운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. 이들은 40개 주요 공항의 상업 항공 운항 규모를 최대 10%까지 줄일 예정이다.
- 연방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 셧다운 기간동안 항공 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, 항공편 지연, 보안 검색 대기열이 길어졌다고 전했다.
- 미국 연방항공청(FAA)는 애틀랜타, 시카고, 뉴욕 공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항 중 일부 비행 노선을 감축할 예정이라 전했다.
-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여행객들에 이러한 지침을 알리기 시작했으며, 취소된 항공편은 자동으로 재예약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항공사 임원진과 항공 교통 관제사를 대표하는 노조 간부들은 정부 셧다운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## **CNBC: Retailers' holiday hiring to hit lowest level since the Great Recession, says major industry trade group 소매업체 홀리데이 시즌 채용 최저치**

- 전국소매업연맹(National Retail Federation)은 올해 소매업체의 연말 홀리데이 시즌 고용이 265,000개에서 365,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,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근로자 수라고 밝혔다.
- NRF CEO Matthew Shay는 이러한 고용 전망이 “노동 시장의 둔화를 반영한다”고 전했으며, 소매업체들이 휴일 근로자를 442,000명 고용했던 1년 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임을 강조했다.
- 그러나 이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NRF는 연말연시 지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지출이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 사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.
-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소매업계는 고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, 이러한 채용 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.
- 불확실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로 보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